

우리농산물 안전하다

농약잔류 검사결과 대부분 검출안돼

국내농산물은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일부 검출된 경우도 허용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국립농업자재검사소(소장 金延載)는 지난 8월 13일, 1991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약 2년간 국내 주요 24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국 주산단지 38개소에서 122점의 시료를 수확전에 채취하여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약과 잔류가 우려되는 농약등 26종 농약에 대하여 시료당 2~12성분씩 총 320농약성분의 잔류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사시료중 73%인 89점이 불검출되었고 27%인 33점이 검출되었으나 허용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미량이 검출된 경우도 고추에서 메소밀이 0.05ppm 검출되었으나 허용기준 1.0ppm에, 오이는 디크로보스가 0.02ppm 검출되었으나 허용기준 0.3ppm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재검사소는 얼마전 농약검출 보도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딸기의 경우 주요 주산지(화성, 논산, 완주, 칠곡)와 서울가락시장 및 대전에서 딸기를 20점 채취하여 스미렉스와 흘팻의 잔류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스미렉스는 평균 0.15ppm이 검출되어 WHO/FAO가 정한 딸기의 허용기준 10ppm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었고 흘팻도 19점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1

점에서만 0.006ppm이 검출되었으나 허용기준인 5ppm에 크게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한편 자재검사소는 이같은 검사결과를 해당 재배농가에 알려주고 통가에서 사용될수, 수확전 최종사용시기를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농산물의 품질을 높여 안전성 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앞으로 농민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주어야 하며 우리 농산물이 안전검사를 결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되었으므로 소비자들이 더욱 우리농산물을 믿고 이용하여 주시길 당부한다.

농약정보



농약잔류검사 결과(1991. 8. 1~1993. 6. 30)

농작물	시료수	검사농약	적 합			부적합
			계	불검출	기준치이하	
24종	122점	320점	122점 (320성분) 100%	89점 (277성분) 73%	33점 (43성분) 27%	—

검사 농산물(24 작물)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양파 배추 고추 파 마늘 당근 상추 무 포도 복숭아 배 사과 감귤 벼 맥주보리 감자 옥수수 고구마 콩

시료채취 지역(38개소)

경기(이천 평택 광주 안성 남양주 연천 고양 양평) 강원(춘천 평창 홍천 영월 원주) 충북(음성 중원 단양) 충남(논산 부여 연기 천안 예산) 전북(고창 익산 김제) 전남(해남 구례 무안 광주 나주) 경북(고령 의성 경산 영양) 경남(밀양 창녕 사천) 제주(서귀포 남제주)